

사극으로 좀비라는 소재를 버무려낸 두 사람. 김은희 작가(47)는 '조선왕조실록'의 '수많은 백성이 이름 모를 괴질로 인해 목숨을 잃었다'는 글귀에 자극받고 상상력을 더해 이야기를 써 내려갔다. 스크린에서 활약해온 김성훈 감독(48)은 이를 토대로 첫 드라마를 연출했다. 이들이 의기투합한 '킹덤' 6부작은 동영상 스트리밍 플랫폼 넷플릭스의 첫 오리지널 한국드라마이기도 하다. 25일 공개한 시즌1은 내년 선보일 시즌2에 대한 기대를 높이며 화제를 모으고 있다. 그 주역인 김 작가와 김 감독을 29일 서울 삼청동의 한 카페에서 만났다.

김은희 작가

넷플릭스 첫 한국드라마 '킹덤' 6부작 의기투합

김성훈 감독

시즌2 줄거리요? 말하면 돈줄 끊겨



◀넷플릭스 첫 한국드라마 '킹덤'을 집필한 김은희 작가는 "출연자의 연기나 세트 구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신선했다"고 돌아섰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끊임없는 욕망의 이기적인 인간 그려
2월 시즌2 첫 촬영...시즌3 여지 남겨

김은희 작가는 "주변 사람들과 SNS를 커닝해 반응을 예측한다"며 웃었다. 그의 말은 넷플릭스가 자사 정책상 영상 영상 조회수 등 흥행 정도를 드러내는 수치 자료를 밝히지 않는 탓에 '킹덤'에 대한 대중의 반응을 감지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시즌1을 선보이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른 드라마처럼 영상을 확인하며 쓰지 못해 조금 불안했다. 넷플릭스는 시즌2 제작이 확정된 것만으로도 시즌1이 성공한 거라고 하더라. 돌아켜보니 출연자들의 연기나 세트 구성 등을 모르는 상태에서 작업하는 게 신선하고 재미있었다."

● "인간의 이기심 그리고 싶었다"

주지훈·류승룡·배우나 등이 주연한 '킹덤'은 '좀비 사극'으로서 풍성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이들로 인해 고통 받는 민초의 서글픔을 녹여냈다. 민중은 배고픔을 이겨내기 위해 '역병'의 괴물인 좀비가 되고,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물어뜯는다. 욕망 앞에서 이들에게 조선시대 반상(班常)의 계급은 부질없다.

김 작가는 "인간은 최악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 밑바닥을 드러낸다"며 "끊임없이 욕망을 채우려는 인간의 이기적인 모습을 그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그렇다면 왜 좀비였을까.

"좀비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평소 질병과 전염병 등에 대한 관심이 많아 관련 책을 많이 읽었다."

좀비의 존재가 긴장감과 공포를 주지만 슬퍼보였다. 그런 슬픈 존재를 권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이야기로 풀어내고 싶었다."

● "시즌2 내용? 비밀!"

김 작가는 시즌1을 집필하면서 총 6부작에 등장하는 장소를 직접 찾았다. 부산 금정산성과 낙동강 주변을 걸으며 카메라에 담길 모습을 상상했다. 기온이 10℃만 되어도 "땀에 한기가 들어" 많이 견지 못하면서도 노트북을 항상 들고 다니며 글을 썼다. 그는 "노트북 앞을 떠나 있으면 괴롭다"면서 "작가인 제가 작품에 빠져 살지 않으면 어떻게 시청자에게 이야기를 제대로 전달할 수 있겠나"며 열정을 드러냈다.

김 작가는 주·조연, 단역 등 모든 출연자들에 각별한 애정을 표하며 특히 총잡이 영신 역의 김성규에 대해 "캐스팅 후 '범죄도시'를 봤는데 동일인물인가 싶더라"고 했다. 이어 '킹덤' 속에서 "화면을 갖고 놀며 몸을 저렇게 쓰는 연기를 하다니"라며 놀라워했다.

그런 연기자는 물론 김성훈 감독 등 스태프의 힘으로 자신의 글이 영상화하는 과정을 지켜본 그는 이제 2월11일 시즌2의 첫 촬영현장을 찾을 예정이다. 이미 시즌2 대본을 완성한 만큼 호기심으로 묻지 않을 수 없었다.

"어디까지 이야기를 해야 할까. '비밀 유지' 계약서를 작성해 많은 말을 하면 작가가 바뀔지도 모른다. 하하! 시즌3에서는 더 많은 등장인물과 공간의 요소를 그려내고 싶다. 시즌2에 그 여지를 남겨뒀다. 이게 제 돈줄이다. 하하!" 백솔미 기자 bsm@donga.com

무한자유 문구에 혹해서 계약했죠



▶김성훈 감독은 '킹덤'에 대한 가장 인상 깊은 반응으로 "조카의 '삼촌, 한국이 이렇게 예뻐?'라는 말"이라고 말했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넷플릭스 파격 지원...협업하길 잘해
배우들 연기력 논란? 다시해도 함께

김성훈 감독에게 '킹덤'의 시작은 2016년 여름 김은희 작가와 서울 여의도의 한 편의점 앞에서 나온 맥주 한 잔이었다. 김 감독은 "겨우 맥주 한 잔에 넘어가다니. 그 짧은 생각의 대가를 2년 반 동안 치르고 있구나 싶다"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가 단번에 '킹덤'에 합류한 건 "새로운 걸 하고 싶다는 욕구" 때문이었다. 좀비도, 사극도, 드라마도, 넷플릭스도 그에게는 처음이었다.

"김 작가가 '킹덤'을 제안했을 때 고민을 오래할 줄 알았다. 하지만 놀랍게도 듣자마자 '하지, 뭐'라는 말이 나오더라. 새로운 매체가 정말 궁금했다. '창작자에게 무한한 자유를'이란 넷플릭스 광고 문구에도 유혹 당했다. 하하하!"

● "넷플릭스와 협업, 주변에 추천하고파"

'킹덤'은 25일 190여개국에서 공개됐다. 김성훈 감독은 "이런 방식은 처음이라 우리도 낯설다"고 말했다. 그래서 반응 한 구절 한 구절에 일희일비하기 보다 "좋은 것만 보려 애쓰자"는 마음이라며 웃었다.

"드라마의 새로운 유통방식 그리고 해외에 선보이는 사극이라는 점에서 국내외 시청자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관심이 몰리는 건 당연하다. 가장 의미 깊었던 건 미국으로 이민 간 조카의 '삼촌, 한국이 이렇게 예뻐?'라는 질문이었다. 해외에서는 '한국의 아름다움'이란 반응이 빠지지 않는다."

넷플릭스는 지난해 11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시아 라인업 공개 현장에서 '킹덤'을 비중 있게 소개했다. 이달 21일 열린 제작발표회에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김 감독은 이에 "우리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후발주자'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지원을 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촬영을 시작하는 순간부터 끝까지 넷플릭스는 '제재나 부담을 주지 않았다'는 약속을 지켰다. '킹덤'의 결과가 시스템 안에서 재생산됐으면 좋겠다. 그러면 좋은 인재들이 더 많은 시도를 할 수 있고, 시청자도 양질의 콘텐츠를 만날 수 있리라 믿는다."

● '킹덤'의 시작과 끝, 김은희 작가

김 감독에게 "대한민국 톱" 김은희 작가가 '킹덤'의 시작이었듯, 그 끝 역시 마찬가지였다.

"작가의 전자들을 보면서 익히 알았지만 이번엔 작업하면서 그가 나태함을 모르는, '워커 홀릭'임을 여실히 느꼈다. 즐기는 사람은 정말 이길 수 없다. 한때 우리 둘 다 일이 없을 때도 있었다. 함께 성장하면서 '킹덤'을 내놓은 걸 서로 자축하고 있다. 김 작가의 남편이자 나와 절친한 장항준 감독은 '내가 키운 두 자식들이 다 잘 됐다'며 자랑스러워한다. 하하!"

"다시 해도 이 배우들과 하겠다"고 마음 먹게 만든 주지훈, 류승룡, 김상호 등 주연들의 연기도 '킹덤'의 화제에 불을 붙였다. 김 감독은 " '킹덤'을 보면 뿌듯하다. 이야기 자체로는 시즌4나 5가지 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세계관을 넓혀 시즌을 늘리면 좋겠다는 원대한 꿈도 있다"고 했다.

유지혜 기자 yjh0304@donga.com

? 김은희 작가

▲1972년생 ▲1995년 수원대 신문방송학과 졸업 ▲1998년 SBS 방송작가 입사 ▲2006년 영화 '그해 여름' 시나리오로 데뷔 ▲2010년 '위기일발 풍년빌라'로 첫 드라마 데뷔 집필 ▲2011년부터 드라마 '싸인' '유령' '쓰리 데이즈' 등 집필 ▲2016년 대한민국 콘텐츠대상 대통령 표창·제52회 백상예술대상 TV부문 국본상(시그널) ▲2020년 넷플릭스 '킹덤' 시즌2 공개 예정

? 김성훈 감독

▲1971년 2월20일생 ▲2003년 영화 '오! 해피데이' 조감독 ▲2006년 영화 '애정결핍이 두 남자에게 미치는 영향'으로 연출 데뷔 ▲2013년 영화 '끝까지 간다' 연출 ▲2014년 제51회 대중상 감독상·청룡상 각본상(끝까지 간다) ▲2016년 영화 '더닝' 연출, 제36회 한국영화평론가협회상 10대 영화상

연예뉴스 HOT 5

BTS '위 아 불릿프루프2' 1억뷰

모 아이돌, 소속사 대표 성추행 고소

손창민 여동생 '1억원 빚투' 논란

JYP, 소니뮤직과 日 걸그룹 만든다

한지민·정해인, 드라마 '봄밤' 출연



방탄소년단

그룹 방탄소년단이 6년 전 발표한 '위 아 불릿프루프 파트.2' 뮤직비디오가 유튜브 1억뷰를 돌파했다. 소속사 빅히트엔터테인먼트는 "29일 오후 1시14분께 유튜브 조회수 1억 건을 넘겼다"고 밝혔다. 이는 카카오톡의 케이팝 동영상 채널 원더케이 유튜브 계정에 오른 뮤직비디오 조회수만 집계한 수치다. 방탄소년단은 세계 16번째로 1억뷰 기록을 세웠다. 한국 그룹으로는 최고 기록이다.



회사 투자자의 아내인 B씨를 성추행 혐의로 18일 서울중앙지방법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한 사실이 29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그룹에는 지난해 6월 종영한 엠넷 '프로듀스101 시즌2'에 출연한 연습생이 멤버로 활동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A와 B씨 측은 "성추행한 사실이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창민

고 귀국해 금전적·심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손창민의 소속사 불려썬 엔터테인먼트는 29일 "현재 사실 확인 중이며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JYP 박진영

회견을 열고 걸그룹 제작에 대한 구상을 공개한다"고 29일 밝혔다. JYP와 소니뮤직은 올해 여름 '걸스 그룹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일본에서 대규모 오디션을 진행한다.



한지민 정해인

로 한지민과 정해인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봄밤'은 지난해 5월 종영한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안판석 감독과 김은 작가가 재회한 작품이다. 한때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손예진이 여주인공 물망에 올랐지만 결국 한지민이 그 자리에 앉게 됐다.